

“휴먼 파워·관광객 유치...강진의 기적 완성하겠다”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원 군수가 민선5기와 민선6기 강진군수 역임 후 징검다리 민선8기로 재취임했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강진 군정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 지역 곳곳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수가 직접 나서 민선8기 비전과 철학, 핵심 과제 등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원 군수는 민선8기 ‘강진의 기적’을 일궈가기 위해 ‘5555 전략’을 제시했다. 연간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비롯해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 가구당 연소득 5,000만 원 실현, 강진인구 5만 명 시대 달성 등이다.

강 군수는 강진의 인구 고령화 등 직면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뒀다.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인구 증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각오다.



◇휴먼파워 집중투자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의 기적’ 달성을 위한 2대 핵심 전략으로 ▲사람이 힘인 ‘휴먼파워’ 집중투자 ▲대규모 관광객 유치·4차 산업 혁명 활용을 꼽았다.

휴먼파워 집중투자는 음식업, 농축수산업, 임업, 유통업 등 직종별 종목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생산, 유통, 홍보, 마케팅 노하우, 고소득 전략 등을 전문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진흥재단을 설립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명인의 컨설팅을 통해 지역 음식점을 업그레이드하는 강진읍 백종원 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강 군수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면 직접 수익에 맞춘 1차 산업은 물론, 서비스업 위주의 3차 산업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며 “재배(1차 산업)와 가공(2차 산업), 체험 관광(3차 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이 불모지를 터,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농축수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하면 축사 악취 및 AI 자동 센서를 구축하고 드론을 이용해 무인 택배나 농약 살포가 가능하며 스마트 팜이나 스마트 온실 운영으로 1차 산업 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강 군수는 “강진군의 1차산업 비중이 71%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현행 전체 예산 가운데 25%를 차지하는 1차 산업의 예산을 30%까지 확대하겠다”며 “농어촌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강진 찹쌀을 브랜드화하며 강진 한우를 전국 TOP 5로 명품화 시켜가겠다”고 덧붙였다.

◇관광객 유치·4차 산업혁명 점목

강 군수는 심각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강진군의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활용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강진만 관광단지 조성 및 월출산권을 개발하고 칠량 초당립을 완전히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강진읍 중심의 음악 도시 조성으로 MZ세대의 주목도를 높이고, 전원주택 2,000세대를 조

직종·종목별 전문가 양성
4차 산업혁명으로 탈바꿈
MZ세대 겨냥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 협약 365생활권
긴밀한 ‘소통 시스템’ 구축



성해 인구 유입에 사전 대비해 간다는 전략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진만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 병영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청자 불축제, 보은산 수국길 축제, 월출산 소풍, 갈대 축제, 음악장작소 활성화, 중앙로 상가 거리 공연 등 강진군 전역을 상설축제의 무대가 되도록 해,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 군수는 “관광객 유치가 ‘강진호’를 앞에서 이끌고 4차 산업 혁명 활용이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면, ‘시간과 거리’의 경계가 사라져 전국에서 강진의 맛과 멋을 느끼기 위해 강진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21일, 관광 대체 소비 규모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 1명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1년간 숙박여행객 18명과 당일 여행객 55명에서 숙박객 6명과 당일 여행객 14명 규모 정도까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자체의 ‘관광에서 인구감소 해법 찾기’가 타당성을 갖는 이유”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객 유치에 4차 산업 혁명을 접목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일자리, 유튜브, 스토리텔링, 메타버스, 웹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생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음악장작소 활용·접근성 개선

강 군수는 주4일제 시대 도래로 ‘4도 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생태관광, 생활 관광, 소규모 여행 등 코나를 겪은 정서는 ‘웰니스 관광’으로의 변화가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은퇴자를 중심으로 농촌으로 유턴하는 ‘인생 2막은 농촌에서’의 붐을 유도하고, 음악장작소가 있는 강진을 ‘음악 도시’로 성장시켜 강진의 새로운 기회 창출에 총력을 쏟는다.

음악장작소는 강진원 군수가 민선 6기 재임 당시 전통시장에 노래와 음악의 전문 영역을 도입한 것으로 지금도 강진 푸소(FUSO) 관광객 및 일반 관광객들의 노래를 녹음해서 파일로 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과 목포~부산간 고속철도 구축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강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던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순천, 서강진 시대’가 재개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의 기회를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으로 대비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연결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 등의 상호 연결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강진 체험과 강진 세일즈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농촌 365 생활권 구축

강진군은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325억 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365 생활권’ 구축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원 군수는 농촌협약의 장기발전계획으로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 접근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 활용 ▲5분 안에 응급상황을 대응하는 ‘365 생활권’ 실현 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강진만의 사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365 생활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만인의 행복, 365 강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농촌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강진군 일원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총 325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형교통모델,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등 생활SOC 기초인프라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안 실시간 공유...현장 위주 군정

강 군수는 “업무 보고 시 부서장이나 팀장은 물론, 반드시 실무 담당자를 배석하도록 해, 실제 일하는 직원들과의 긴밀한 소통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선 8기 비전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녹아들도록 하겠다”며 현장 위주의 군정을 예고했다.

특히, 월간 업무 회의 등 민선 8기 정책 방향과 현안 사항에 대해 모든 직원이 실시간으로 함께 하기 위해 회의 실황을 기관 유튜브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통과 연결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에 군민과의 대화를 포함해 강진원 군수의 취임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관 유튜브 ‘찐’을 통해 생중계됐다.

강 군수는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민, 공무원이 함께 논의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를 기회로 활용해, 강진의 위기를 넘어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민선 8기 출범의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강 군수의 민선 8기 주요 정책 해법의 기조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소통과 연결 속에 창의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과 철학 등 ‘3C 정신’(communicate, connect, create)이 바탕이 됐다. /강진=한태성 기자

주요 공약

- ▲4차 산업 혁명 지원센터 설립 운영
- ▲소상공인 진흥재단 설립 ▲강진만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 ▲전원주택 2천 세대 조성, 제2의 푸소(FUSO)로 개발
- ▲강진군 전역을 상설 축제 무대화, 음악 도시로의 성장 ▲대규모 리조트 단지 조성 등 강진만 관광단지 개발
- ▲월출산 경포대와 초당립 관광 명소화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 ▲강진찹쌀 전국 브랜드화 한우 전국 TOP5 명품화 등

강진원이 걸어온 길

-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석사과정 수료 ▲미국 시라큐스 대학원 졸업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전남도 법무담당관 ▲장흥부군수 ▲전남도 정책기획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 ▲민주 통합당 전남도당 민생경제 대책위원장 ▲민선 5기, 6기 강진군수

(왼쪽부터)
▶강진원 군수가 초등학교를 찾아 배식봉사에 참여했다.
▶강진원 군수가 김준수 국약인을 강진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진원 군수가 취임식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강진군 비전 2대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